

사회주의권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중국, 소련, 북한을 중심으로—

천 정 응*

- I. 서 론
- II. 사회주의권 정치사회화의 특성
- III. 중국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 IV. 소련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 V. 북한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 VI. 결 론

I. 서 론

최근 소련을 비롯한 동구 여러나라에서의 공화국 분리독립운동과 민주화요구 등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마침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서의 공산당 해체, 발트 3개 공화국의 독립과 소연방의 재구성이라는 역사적 격변을 겪게 하였으며 체제 변화를 완고히 거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등의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소련 공산당의 해체’로까지 상징되는 공산권의 이러한 세기적 변혁은 70여년의 사회주의

건설 역사에서 크나큰 획을 그은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개혁과 개방으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정치사회화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과 개혁은 하나의 혁명이며, 창조적 사고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10월 혁명이 갖고 있던 주요이념의 확산과 발전”¹⁾이라는 규정이 이미 도전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사회화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달리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절대적 필요성으로 의도적이며 직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고르바초프 지음, 하용출 옮김, 페레스트로이카(서울:사계절, 1988), pp. 4-5.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제기되는 이러한 의문은 특히 정치사회화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지난 8월의 소련사태에 따른 중국과 북한 등의 반응이 ‘체제단속의 강화’로 나타나고²⁾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사회화의 모든 과정을 당과 국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철저히 관리할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규범이 강력한 투입 *input*과 통제 *control*를³⁾ 통해 일관된 형식으로 전수되고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권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를 논제로 하는 이 글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권에서의 최근의 변화에 따른 관심에서 제기된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사회화는 사회화의 전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를 논의의 쏠점으로 하는 것은 정치사회화의 절대적 시기가 청소년기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공식조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역할은 정치체제를 달리함에 따라 조직구조와 활동내용 및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며 정치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체적으로 정치사회화에 있어서의 공식적 조직의 중요성

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훨씬 더 크며 성인이나 청소년을 막론하고 국민을 정권의 규범으로 정치사회화시키는 책무를 시도하는 기관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식적 조직이 제 1차적인 것이다.⁴⁾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 정치사회화는 현존 정치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작용함으로써 체제강화 및 유지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담당자, 대상자 등에 있어 서구자유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 특히 중국, 소련,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여러 정치사회화 담당기관중에서 대중조직으로서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사회주의 건설 및 개조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권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정치사회화 기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현재 변화의 와중에 있는 사회주의 사회 일반 그리고 특히 소련과 중국,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의 기능과 성격은 이들 사회의 조직원리인 마르크스주의 분석 방법에 따라 정치·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와 경제적 ‘하부구조’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만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분석은 이 글의 범위 밖으로 하고 여기서는 당과 국가가 전 사회적 규모로 동원하고 있는 정치사회

2) 특히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권에서의 민주변혁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행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이 모든 현상을 노동계급적 관점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보고 판단하여 부르조아사상, 문화 및 생활방식이 북한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을 역설하면서 사상무장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1. 9. 5

3) Ivan Volgyes (ed.)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pp. 1-2.

4) 이준형, “북한의 정치사회화 변인에 관한 연구—학교변인을 중심으로”, 공산권연구논총 (서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1988), 제1권 p. 174.

5) 김명수, “중·소의 정치사회화 비교연구: 당의 이데올로기 사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4권 1호 (1990. 봄), p. 11.

화 노력의 하나로써 청소년단체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 단체의 활동과 정치사회화 내용을 고찰하고 그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는데 의의를 두기로 한다.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화 주체로서의 개인이 그들의 정치태도를 습득함에 있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심과제는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하여 체제의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전수하느냐하는 정치사회화의 내용과 정치사회화는 주로 언제 이루어지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가느냐는 정치사회화의 시기와 발달 그리고 누가, 무엇이 정치사회화를 일으키게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느냐는 정치사회화의 동인 및 학습과정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그 분석의 틀이나 이론적 접근 모델이 뚜렷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서구의 정치학적 연구범위내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경험적 조사연구와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성으로 여기서도 주로 2차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먼저 밝혀둔다.

II. 사회주의권 정치사회화의 특성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청소년단체의 정치사

회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치사회화의 개념과 기능,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사회화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란 사회화 현상의 특수형태로 정치적 의도를 사회화과정에 내재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물학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성숙하는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으로도 성숙하게되는데⁶⁾ 정치사회화란 이러한 인간의 정치적 성숙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사회화는 정치생활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모든 정치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사회화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사회화의 목적 내지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의미는 대동소이 하다. 대체로 정치사회화는 현상유지 *status quo*를 지속시키는 일환으로 보거나 개인들이 성장해가면서 특이적 욕구나 가치를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두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의 개념은 사회가 구성원들을 전모델 *priori model*에 알맞도록 육성시키는 것으로 사회화되는 개인과 정치체제 및 사회화시키는 동인 간의 상호작용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자의 경우는 개인이 정치적 정향 *orientation*과 행태 *behaviour*의 특징적인 제유형 *patterns*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광의적 개념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정치에 관련된 제학습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사회화란 정치적 의식, 태도, 행위등이 학습되며, 학습된 정치적 행위양식이

6) 이영호 외, 현대정치과정론 (서울:법문사, 1978), p. 74.

정치체제의 안정과 지속 및 사회질서의 통합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⁷⁾ 개인으로 하여금 정치체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가치관, 신념, 동기 및 태도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써 정치체제의 이상적인 목표나 이익집단간의 이해 해결, 사회적 질서유지 및 번영, 민족국가 영존 등과 같은 특정목적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사회화는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배계급의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여겨져 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사회화는 그 내용과 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 크게 2가지로 유형화되는데, 첫째 유형은 정치사회화 과정이 대단히 비조직적 *unstructured* 이고 비공식적인 것, 즉 자의적 또는 자연발생적이며 잠재적 *latent* 인 나머지 정치사회화는 무한하고도 잡다한 각종 영향의 산물 *the product of a myriad of influences*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유형은 정치사회화 과정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확일적이며 중앙통제적인 것으로 국가가 정치사회화의 과정에 철저히 개입하여 정치사회화의 기관 *agent* 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명시적 *manifest* 이어서 정치사회화는 일정하게 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치사회화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공산주의(전체주의) 정치체제에서 실현되는 정치사회화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⁸⁾

정치사회화의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그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성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압박시켜 유도해 나간다. 그러나 공산체제의 경우 전고한 계층 체계적 조직과 치밀한 계획에 의거해서 상부로부터의 지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물리적 수단과 위협, 보상수단을 주기적으로 배합하여 활용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이는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공포감의 조성 및 강제수단을 배제하며 도덕적 규범과 탈조직적인 원칙적용을 의미하는 자발적 유도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⁹⁾

정치체제의 상이에 따른 정치사회화의 방법의 이러한 차이점은 양 정치체제가 그 가치추구의 본질을 달리하고 있음에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상적 가치창조가 대중인 사회세력에 의해 주도되며 경쟁을 통해서 다수 사회성원의 의도에 부합된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공산체제에서는 가치선택의 자유와 대중참여를 통한 가치창조를 거부하고 마르크스, 레닌 및 현존 최고

7) 박용현, "정치교육과 정치문화", 국민윤리학회, 정치교육 (서울:형설출판사, 1983), p. 19.

8) Joel J. Schwarz, "Political Socialization: The Elusive 'New Soviet Man'," *Problems of Communism* (Sep-Oct, 1973), p. 39.

9) 김수희, "품소통의 정치사회화 역할과 이상적인 청년모델", 중소연구 (서울: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7권 3호 (1983. 가을), pp. 98-99.

통치권자의 사상만을 절대진리로 규정하고 공산당만이 사회화과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체제의 경우 특별한 인위적 노력없이도 정통성유지와 사회통합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체제는 그 리더십의 합리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정치사회화를 강도 깊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의 정치사회화는 “국가, 당 그리고 사회적 대중조직이 합심하여 하나의 ‘새로운’ 인간유형, 즉 ‘사회주의적’ 인간유형을 창출하기 위해 계획적, 지속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진행시키는 전인적 교육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⁰⁾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사회화가 중시되는 이유는 우선 그 체제의 정당성이 대중의 합의에 의해 위임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절대진리이며, 마르크스가 설정한 이상사회로 실수없이 그리고 신속히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오로지 공산당에게만 있다는 독단으로 인해 당의 지속적인 역할의 합리화를 통한 정통성 확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또한 체제가 설정한 목표인 산업화를 실현함에 있어 효율성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산체제의 영속을 위한 후계세대 양성과 대중에 의한 지배문화 재현을 위해서도 정치사회화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당 지도층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복훈련과 실천과정을 거쳐 습득시킴으로

서 확고한 당성을 가진 후계집단을 양성해왔으며 상당한 비중의 정치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산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들이 사회화 특히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원’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의도적, 조직적, 체계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떠한 사회도 정치체제의 유지가 최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가치나 태도를 직접 전달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기구를 갖고 있는¹¹⁾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산체제에서의 정치사회화는 가정, 학교, 동년배집단을 비롯한 군대, 당, 탁아소, 유치원 등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관계하는 모든 기관이 의도적인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명시적인 정치교화 *political indoctrin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와 달리 공산체제에서는 농장, 기업소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대중매체 모두가 정치적 태도, 정치행동, 정치정향 모두를 바꾸는 주요한 매개체 *socializer* 이자 동인 *agents*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사회단체를 통한 의도적인 정치사회화의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수 있는데 이는 서구사회에서의 사회단체가 정치사회화의 기관으로서 주로 친목단체, 압력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치사회화를 통한 정치체제의 안정이라는 기능의 수행을 학교교육 중심으로 어느정도 공식화·체계화되어가고

10) 전성우,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사회화: 이론적 고찰”,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3권 4호 (1989, 겨울), p. 29.

11) R. E Dawson, K. Prewitt, K.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7), p. 109.

있을 뿐,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기능 수행의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구 공산국가의 정치사회화를 연구한 이반 볼게즈 Ivan Volgyes는 이러한 정치사회화 기구를 가정, 교회, 동년배 집단의 1차기구와 당, 청소년집단, 학교, 노동조합, 군대 및 제 3클럽 혹은 기호집단의 2차기구로 구분하고 1차기구는 사회화시키는 사람과 사회화되는 사람사이의 직접적 관계에서 비조직적 활동인 면대면 *face to face* 을 통해 가치를 주입하는 비공식적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2차기구는 공식적 기구로서 더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정치사회화 매체는 서구사회가 중요시 하는 비공식적 구조 *informal structure*로서의 가정·동료집단·교회 등을 약화시키고 그대신 공식적 기구 *formal structure*인 당, 청소년조직, 노동조합, 군, 학교, 군중단체 및 대중매체를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로서의 청소년단체도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정치사회화의 중요기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산체제에서의 청소년단체는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와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설정되는 조직 목표와 활동으로 조직원의 행동이나 사고방식까지 공산주의 인간의 틀 속에서 맞게하고 통치조직의 하나로 이용함으로써 청소년 정치사회화의 전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I. 중국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중국에서의 정치사회화는 당, 학교, 군중단체, 군대, 대중매체 등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는 학교를 비롯, 공산주의청년단, 학생연합, 노동조합청년부, 부녀연합청년부 등 각종 청소년조직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공산주의청년단은 그 하급조직인 소년선봉대와 함께 중국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공청단)은 단원이 높은 이상을 갖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인격을 배양하며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평화와 개발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4세에서 28세까지의 청년남녀를 중심으로 조직·활동하고 있는 공식사회단체의 하나이다.

공청단의 단원수는 1988년 현재 약 5천 6백 만명으로 중국 전체 청년(14세-28세) 가운데 약 20%를 점하고 있다.¹³⁾ 특히 학생들의 경우 공청단의 대상연령인 14세가 초급중학 1학년에 해당하므로 초급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의 대다수가 공청단의 가입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공청단원 가운데 학생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12) Ivan Volgyes, 앞의 책, p.2-3.

13) 이문규, "중국청소년의 사상정치교육",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3권 1호 (1989. 봄), p. 141.

있는 점에 비추어 모든 활동에서 학생청년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청단은 민주집중제를 조직원칙으로 중앙조직, 지방조직 및 기층조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즉 공청단은 전국대표대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여 중앙단위의 중앙위원회와 성, 자치주, 직할시, 현, 자치현, 시 등의 각급 지방조직을 갖고 있으며 공장, 상업, 학교, 기관, 주거지역, 합작사(협동조합), 농(임·목)장, 향진, 인민군대의 중대단위, 인민무장경찰(전투경찰)의 중대단위에 그 기층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중앙단위의 중앙위원회에는 상무위원회를 두고 서기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선봉대공작부를 비롯하여 관공청, 조직부, 선전부, 국제연합부, 대학공작부, 학교공작부, 사회봉사부, 청년노동자공작부 등 29개 부서를 가지고 있다.

지방조직은 3년마다 개최되는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는 각급 단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무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상무위원회에 서기와 부서기를 두어 이들로 하여금 공청단 조직을 이끌어가게 하고 있다. 기층조직은 단원수에 따라 기층위원회, 총지부,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공청단의 주요내용을 직접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는 역할과 공청단 중앙이 지시하는 모든 임무를 청소년들에게 실행하

는 일선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¹⁴⁾

공청단의 조직생활은 지부속에 조직화된 소조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체로 단지부에는 서기 1명과 부서기 1명이 있으며 여러개의 위원회가 있어 그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지부의 서기는 지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위원이 공작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서 단소조는 이러한 기층조직의 임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단지부에 두는 기층조직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¹⁵⁾

공청단의 활동목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장래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청단은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회제도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며, 이상적인 사회제도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확립하며 자신의 일생을 공산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청단의 활동은 거의 1주일에 한번씩 개최되는 소조활동과 단조직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주로 정치교육이 행해진다. 소조의 학습자료는 대부분 공청단의 기관지[중국청년보]와 잡지[중국청년]의 사설이나 특정 기사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단지부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강의와 단지부가 정기적으로 붙이는 벽보(대자보)가 있다.¹⁶⁾ 단조직생활은 단소조회, 단위위원회, 단위대회, 보고회, 이론학습,

14) 이문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정치사회화”,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4권 1호 (1990. 봄), pp. 152-153.

15) 소조는 7-15명 정도로 구성되며 중국 전역에 간부, 노동자, 농민, 학생, 군인, 주민들 속에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집단 조직이다. James C. F.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0), p. 177 참조.

16) A. Doak Barnett, *Cadres Bureaucracy and Political Power in Communist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 31-32.

당의 방침과 정책의 학습, 현대 과학문화의 학습, 비판과 자아비판의 전개 및 단원을 동원 조직하여 당의 결의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지부는 또한 청년들의 일과후 시간에도 정치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 단지부에 '문화실', '청년지가'(청년의 집) 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실은 청년의 과외활동으로 문화, 오락, 체육활동을 전개하며 청년지가는 회의실 및 각종 도서를 비치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공청단의 이러한 조직구조와 활동은 그것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공청단을 통해 청년들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정치운동을 지도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공청단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정치교육과 군중운동의 2가지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치사회화 이외에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지지하는 정치운동도 일찍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공청단지부가 청년들을 정치사회화하는 활동은 직장, 특히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매주 정치학습이 2-3시간에 걸쳐 동일기관 내부에서 진행된다. 공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일과가 끝난 뒤에 매주 3회에 걸쳐 매회 2시간 정도의 정치학습이 작업조를 중심으로 작업현장이나 식당, 회의실 등에서 실시된다.¹⁷⁾ 또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교공청단은 정식교과과정의 정치과목을 전담교원이 담당하여 교육시키며 학업의 과외활동과 학생회 등에 대해서도 정치교육이 이루어진다. 군대에 설치된 공청단 조직은 중대를 지부로하여 정치교육을 수행한다.

공청단은 이러한 정치교육 외에 정치적 경험으로서의 군중운동을 통해서도 정치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다. 군중운동이란 중국지도자들이 정권수립이래 인민들에게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맞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강령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군중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군중을 집단적,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¹⁸⁾ 실제 중국의 중요한 정책이나 계획도 이러한 군중운동을 거쳐 군중의 지지를 얻어서 군중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¹⁹⁾ 그 실천방법은 중국공산당이 공청단을 영도하고 공청단은 청년학생들을 동원하여 학생운동을 전개시키고 이를 통해 공·농·군중운동을 진행시킨다.

군중운동에 있어 공청단은 단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군중운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청년군중 뿐만이 아니라 공·농 군중들에게 전달·선전·선동하며 각종 시위운동의 선봉이 되어 정치학습을 지도하고 토론과 비판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7) M. King Whyte, *Small Groups and Political Rituals in Chin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 176.

18) James C.F.Wang, 앞의 책, p. 177.

19) 군중이 동원되어 당의 노선, 정책, 계획 등을 지시, 집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군중운동은 중국특유의 정치참여행태로 평가된다. James R. Townsend, "Revolutionizing Chinese Youth: A Study of Chung-Kuo-Ching-Nien" in Doak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p. 5.

2. 중국 소년선봉대

공청단이 14세에서 28세이하의 중국청년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비해 중국소년선봉대(소년대)는 공청단이 소년아동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조직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소년선봉대는 공청단 소년선봉대공작부가 이를 조직·활동하고 있으며 1988년 현재 7세에서 14세까지의 중국 전체소년 가운데 57%에 이르는 약 1억 3천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

소년대의 임무는 소년아동에게 공산주의를 교육하는 것이며 소년아동들의 군중조직이란 성격을 갖는다. 소년대가 표방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소년아동이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결심을 갖게하는 것으로 소년대는 조직과 운영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시키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심어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자로서의 자질을 일찍부터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소년대는 소년아동의 군중조직으로써 대다수의 소년아동을 흡수하여 조직 속에 참여시키며 단결, 교육시키는 임무를 갖는다.

소년대는 단위별로는 초급중학, 소학교, 아동교양기관, 구역, 촌, 농업사에 자체적인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원수를 기준으로 소대, 중대, 대대로 구분된다. 소대는 대원 7-13명으로 중대는 2-5개의 소대로 구성되고 2개 이상의 중대가 대대를 구성하고 있다. 소대에는 정·부소대장 각 1명씩을 두고 있으며 이들

은 대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중대와 대대에는 각각 중대 또는 대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중대와 대대의 전체대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소년대의 활동은 소년아동에게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중국사회에 적합한 사회주의적 인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며 그 활동내용은 대략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소년대는 아동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소년아동을 조직화하여 가능한 공익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퇴비만들기, 이삭줍기, 가축돌보기, 해충박멸, 농작물재배, 쓰레기줍기, 폐품수집, 열사와 군인가족의 위문 등이다.

둘째로 소년대는 아동에게 혁명전통을 교육시켜서 계승하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각종 기념일의 의식을 거행하고 노군인, 노노동자, 노혁명가 등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으며 혁명기념관과 혁명유적지 등을 참관함으로써 선배들의 혁명사업을 계승하도록 교육한다.

셋째, 아동에게 양호한 품성을 배양시키고 소년대 안에서 우량한 기풍을 형성하는 활동을 하는데 근면한 기풍, 성실한 기풍, 공익봉사의 기풍, 조직을 확립하고 기율을 엄수하는 태도, 우에로서 단결하는 기풍 등이 그것이다.

넷째, 소년대는 소년아동의 지력과 체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장, 농장, 건설공사현장을 참관하게 하거나, 실습공작, 공예소조활동 등의 음악, 스포츠활동을 전개하며 독서회, 동화의 밤, 작가와의 만남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아동들이 책을 읽는 취미와 관습을 갖도록 지

20) 이문규, "중국청소년의 정치사상교육",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3권 1호 (1989. 봄), p. 137.

도한다.²¹⁾ 또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계야영과 동계훈련을 조직하여 행군, 야영, 수영, 보트경기, 스케이트경기, 각종 구기대회 등을 개최한다.

소년대는 이러한 활동을 위한 시설로 ‘소년궁’과 ‘소년과기침’, ‘소년아동도서관’ ‘소년아동활동침’ 등을 전립·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소년궁’과 ‘소년지가’(소년의 집)는 교외 소년들의 문화, 체육, 과학기술교육의 활동장소인 동시에 소년아동에 대한 학교의 공산주의 교육진행에 협력하여 그들에게 우량한 도덕품성을 길러주는 정치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년아동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다방면으로 취미와 재능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기능을 단련하고 숙련시키는 교육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소년대의 각종 활동의 지도는 공청단이 선발, 파견한 보도원이 담당하고 있다. 보도원은 중대 또는 대대에 배치되며 대개 도시의 큰 학교에서는 대대보도원이 있어 소년대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 보도원들은 수업과 소년대지도를 겸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소년아동들에게 사상정치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년대는 공청단의 기본성격과 임무를 소년아동에게 적용하고 있는 공청단의 하급전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청단이 형이 아우를 이끄는 것과 같이 소년대를 이끌어가야만 하고 공청단이 각종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소년대를 고려해야만 하며 또한 신중히 가

려 뺏아 파견한 지도자가 소년대의 공작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년대공작을 검사, 연구해야만 하고 소년대를 지도하는 일을 중요한 일상적인 공작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소련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소련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는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이론중심교육은 학교외의 청소년조직인 ‘옥짜브라따’ *The Oktiabrata*, ‘피오네르’ *The Pioneer*, ‘콤소몰’ *The Komsomol* 등의 조직활동으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콤소몰은 소련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장래 노련한 지도력을 가진 당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소련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조직이다.

1. [옥짜브라따]와 [피오네르]

[옥짜브라따] *Oktiabrata*는 7세에서 9세까지의 소련아동을 대상으로 조직활동하고 있는 소년단으로 ‘10월 혁명단’ *The Octobrist* 또는 ‘어린시월단’ *The Young Octobrists*으로 불리어진다.²²⁾ 대상연령이 되는 소련의 국민학생들의 대부분이 회원으로 지망하며, 그 활동은 집단주의 정신 아래 학교와 학급의 자치활동이나 노동력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다. 조직구성은 ‘어린 별’이라고 일컫는 6명의 소집단을 중심으로

21) 이문규, 위의 글, pp. 137-139.

22) 이기욱, “소련의 정치교육”, 국민윤리학회 편, 정치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83), p. 230.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집회를 갖고 경축행사를 주도하며 197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연방 '10월 혁명단' 전국대회(1주일간)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24년에 시작된 이 조직은 ① 소년개척단의 예비군, ② 애교심과 경로의식, ③ 노동애, ④ 정직과 용기, ⑤ 근면성이란 엄격한 규칙 아래 장차 '소년개척단'의 전단계로서의 훈련이 부과되고 있다. '10월 혁명단'의 어린단원들은 일년 내내 '소련국토의 탄생', '우리의 조국', '우리 국군', '우리 인민', '노동과 노동자'라는 제목의 단원을 교육받는 바, 이런 과정에서 집단정신의 함양, 협동정신을 고양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라는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혁명은 준비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화나 연극을 어린단원들에게 보여주고 감상을 이야기 하는 시청각 프로그램도 있다.

한편 1922년에 창설된 '피오네르' *Pioner*는 사상교육의 최대조직체로 소년개척단 *The Young Pioneers*으로 불리어지는 10세부터 14세로 구성되는 소년소녀의 대중공산조직이다. 단원수는 1,8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상급의 조직체인 콤소몰로부터 임무와 역할을 지도받고 있다. 1976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전국 '소년개척단' 지도자 대회에서 당시 서기장인 브레즈네프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모두가 개척단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레닌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개척단의 조직 아래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이념적, 정

치적으로, 노동정신으로, 도덕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레닌의 유산을 이어 받아 싸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연설하고 있다.²³⁾

소년개척단원들에게는 항상 조국애와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며 학업과 품행이 우수해야만 된다는 조건들이 전제되고 있다. 조직구성은 각 학년별로 구성된 소대와 그 아래 반별로 결성된 본대가 있고 학교별로는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소년개척단들에게 부과된 수칙으로는, 전체가 결정한 사항은 무조건 따르고 술선수범하며, 집단의 간부를 존경하고, 할당된 임무는 완수하며 남을 돕고 나쁜 점은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붉은봉사단' *The Red Scout*이란 학생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행방불명된 전사자들의 유해나 유적탐사, 이산가족 찾기운동, 전쟁기념관 방문, 전적지 순례 등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소련 혁명사의 찬양과 공산주의사상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적 일과 군사적 영광"의 장소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조사하고 보호하는데 특히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물을 세우고, 참여한 사람들의 출처를 조사하며 생존자의 회고담을 기록하고 학교 박물관이나 거의 모든 학교에 있는 '영광의 방'을 위한 전시품을 수집하는 것이 주요활동이 되고 있다.²⁴⁾

2. 콤소몰

콤소몰 *The Komsomol* 즉, 공산청년동맹은

23) 김동규, "소련 사상교육의 이론과 실천", 중소연구 (서울: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3권 1호 (1989. 봄), p. 201.

24) Friedrich Kuebart,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Schoolchildren", in Jim Riordan (ed.) *Soviet Youth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 106

1918년 10월에 창설된 전러시아공화국 노동자 농민청년동맹을 시발로하여 발전된 소련공산당의 예비군적인 청년조직이다. 그 조직구성은 14세부터 28세에 이르는 청년들을 회원자격으로 하며, ‘옥짜브라따’와 ‘피오네르’와 함께 소비에트 시민의 3세대를 나타내는 3각형의 붉은 넥타이를 회원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콤소몰은 레닌의 혁명육구와 정치관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가입대상연령의 소련청년 가운데 약 50%에 달하는 4천만명에 이르고 있다.

콤소몰의 본래명칭은 ‘전연방 레닌주의 청년 공산동맹’ *All-Union Leninist Young Communist League* 으로 여기서 ‘전연방’이란 소련의 전지역과 민족을 포함한 중앙집권화된 단일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원가입에 있어 민족차별이 없는 일반원칙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 제국 청년들간의 친선과 우호적인 단결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레닌주의’는 레닌의 사회주의 건설 계획에 적극참여한다는 뜻으로 레닌 사후 채택된 것이며 ‘공산주의’란 용어는 콤소몰의 활동이 정치적 특성과 함께 그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공산주의에 있음을 뜻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맹’이란 공동체, 통일체 또는 연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산사회건설이라는 목표와 공산체제의 정치적 견해 및 도덕적 가치를 같이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콤소몰은 레닌의 이상과 지령을 모델로 하여 공산사회를 추구하는 당성으로 두장시킨 후 당의 사업을 돕게 하는 비자율적인 청년전위대라고 할 수 있으며 청년층을 계도하여 당의 정책수행과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련공산당은 이 조직의 주요목적은 청년집단에 대한 통제수단, 공산주의 정신과 가치관의 고취, 공산당원의 양성에 두고 있으며 “콤소몰은 레닌의 노선에 입각하여 당으로부터 어떻게 생활하고 일하며 투쟁하고 승리할 것인가의 방법을 전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콤소몰이 당의 지시와 통제를 직접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과 콤소몰의 이러한 긴밀한 연계성은 그들의 소위 ‘콤소몰 맹세’에도 기본 책무로서 명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전 근로청년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키고, 수세기에 걸친 낡은 미신적 관습과 도덕적 부담으로부터 청년들을 해방시키며, 공적의무와 집단성을 고취하며, 청년층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격려한다. 둘째, 기성 공산주의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공산당의 영웅적 전통에 동화되어 당과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기회주의적 시도에 대항하는 철저한 레닌주의자 및 용감한 투사가 된다.”는 것이다.²⁶⁾

콤소몰의 이러한 성격은 조직구조와 활동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콤소몰은 성격

25) 김수희, “소련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콤소몰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서울: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4권 1호 (1990, 봄), pp. 134-136.

26) Andrei Andreyev (ed.) *The Komsomol: Questions and Answers* (Moscow:Progress Publishers, 1980), p. 14. 김수희, “콤소몰의 정치사회화 역할과 이상적인 청년모델”, *중소연구* (서울: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7권 3호 (1983, 가을), p. 103에서 재인용.

상으로는 프로레타리아적 및 혁명적이며 목표와 활동성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이고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중앙화된, 그리고 업무의 원칙과 방법상으로는 독립된 계급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콤포물은 회원에 의해 선출된 자체의 중앙 및 지방 시·도기관과 자체의 규약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일규율과 상부구조에 대한 하부구조의 복종, 다수자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형식에 의해 상부에서 하부로 중앙집권화된 공공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콤포물을 당의 분신이 아닌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공적, 정치적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콤포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그 기능은 크게 교육적 기능과 경제개발활동 및 정치사회적 역할의 세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첫번째의 교육적 활동기능은 콤포물 성립의 기본목적의 하나로 청년층을 공산주의 세계관, 노동을 지향하는 의식적 태도, 도덕적 원천과 애국심 고양, 세계노동자와의 국제적 단결을 도모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수행되고 있는 주요기능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공산사회의 건설에는 과학 및 기술 진보를 통해 수립되는 물질 및 기술적 기반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관념적인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발전 및 새로운 인간형성이 요청되고 있다.

여기서 콤포물의 교육적 역할은 주로 관념적인 사상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의식을 대중에게 주입시키고 과거 사회의 심리, 태도, 관습적 잔재를 극복시키며, 사회성

원으로서 창조적 능력 및 재능을 개발하는 주요 책무를 갖는다. 이러한 콤포물의 교육기능 부여에 대해 소련측 간행물은 콤포물 회원들이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혁명적 확신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콤포물의 두번째 기능은 경제개발활동이다. 이는 주요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할당량 초과달성과 최고도의 질적 작업을 좌우명으로 하는 특별작업대를 파견하여 돕는 것이다. 소련공산체제가 청년학생들을 경제개발에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의 원인은 매우 복잡한 것이지만 절박한 경제 현실상황에 청년학생들을 노동에 대한 가치교육과 부족한 인력보충의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콤포물이 동원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조건은 기술, 장비의 부족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토목공사, 토지개간, 벌목, 공업 및 농업인력 보충 등이며, 1970년대초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에 완공한 길이 3,000 Km에 달하는 바이칼-아무르철도 *Baikal-Amur Railway; BAM* 건설사업에 동원되어 영웅적 찬사를 받았던 것은 최근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콤포물의 정치·사회적 활동은 당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주로 새로운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 도덕교육을 학교 및 직장에서 돕고 있으며,

27) 김수희, 위의 글, pp. 108-114 참조.

학교에 재직중인 꿈소물 소속교사들을 동원한 문명퇴치 운동참여, 노동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기술보급 촉구 등의 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꿈소물은 일부 연령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지만 명분상 대부분의 경우 정치·사회적 활동 및 참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꿈소물은 헌법상 소비에트에 책임을 지고 소비에트가 임명형식을 취하고 있는 행정부(각료회의)와 이밖에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단체에서도 참여권을 갖고 있다. 참여의 방식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방향에 맞춰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정치체제에서 볼 때 실질적인 권력은 당이 독점하고 있으며 꿈소물의 당가입은 억제되고 있어 꿈소물의 정치참여 역할은 소비에트내에 한정된 당의 보조적 역할이며 사회참여 역할 역시 당을 보조하는 정치사회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V. 북한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로는 계층별로 조직된 직맹, 농근맹, 문예총, 기자동맹 등과 연령별 성별로 조직된 조선소년단, 사노청, 여맹 등의 2대부류로 대별되는데 북한의 전주민들은 모두가 양대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소년단과 사노청은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 조선소년단

조선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7세부터 13세

까지의 어린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 창단된 '영예로운 소년들의 대중적 조직'으로 소련의 '옥짜브라따'와 '피오네르'에 해당되는 북한의 청소년단체이다. 현재 단원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입단과 더불어 '수령의 어린시절', '아동혁명단', '노동당과 소년단', '항일빨치산투쟁 회상기' 등의 교육을 받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소년단 깃발, 소년단 휘장, 붉은 넥타이, 소년단원들의 경례 등 그들의 상징 *symbols* 과 의식 *rituals*을 통하여 소년단원으로서의 명예감과 성실성 및 조직생활에 대한 충실성 등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받고 있다.

활동목표로서는 첫째, 정리사업, 학습회의, 행사동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둘째, 학생들의 규율상태와 집단행동을 통제하며 셋째, 학생들 속에 공산주의적 도덕윤리관을 주입시키고 넷째, 각종 생산, 건설공사 등에 노력동원된 학생을 감독하고 노동을 통한 세뇌교육을 주도하며 다섯째, 학생들의 개인생활을 지도·통제하는데 조직활동의 중점을 둔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⁸⁾

소년단은 북한의 모든 인민학교와 중학교에 조직되며 사회, 문화, 교육활동을 위한 서클을 보유하고 있다. 소년단은 각급 학교소년단 아래 학년별로 구성되는 분단과 각 학급별로 두는 반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단위로 대장 1명과 대원 6-19명을 두며 분단은 분단장과 4-5명의 위원 및 분단원 15-50명이, 반에는 반장, 부반장 각 1인과 보조원 10-15명이 있어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반은 분조로 이루어지는데 분조장 1명과 분조원 3-7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28) 문도민, "북한의 청소년육성정책", 민족지성 (서울: 민족지성사, 1989), 통권 39호, pp. 103.

소년단은 학교소년단—분단—반—분조로 조직되며 각시·군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지도를 받는다.²⁹⁾

소년단은 분단회의 비판과 학습토론회, 야영 훈련 및 전적지답사를 실시하며 [김일성과 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명령과 지시 관철해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준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상준비]라고 손들고 인사하는 것 등을 생활화하고 있다.

소년단은 또한 사회정치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선전대 활동과 좋은일 하기 운동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³⁰⁾ 선전대 활동은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 등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과 과학기술지식, 문화위생지식들을 내용으로 근로자들 앞에서 강연, 해설담화, 예술소조공연 등을 하는 것이며 좋은 일하기 운동은 위생근위대활동, 녹화근위대활동, 소년단림, 사노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 건설 지원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밖에 매년 김일성 생일 때 실시하는 청소년출정행사, 외화벌이운동, 기름나무심기운동, 고철수집운동, 소년호트랙터, 소년호탱크, 소년호자동차 등의 헌납운동, 학교마다 10정보 이상의 소년단림 조성, 당정책해설, 소년선전대 조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모범소년단을 대상으로 하절기(6월-9월)에 10일간 ‘소년단 야영소’를 설치하여 신체 단련, 사상성 양양과 함께 조직생활을 통한 집단주의 정신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단은 나이어린 9세에서 13세 소년들을 공산주의의 유일사상의 도구로 만들어 공산당과 김일성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복종케하는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사노청의 후비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노청)은 소년단 생활을 마친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청소년단체로서 북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노청의 현재 맹원은 약 4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의 전투적 조직으로서 1946년 창립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개편된 것이다.

사노청은 북한청소년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노동과 투쟁을 통해서 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노청에 가입된 가맹자는 모두 공산주의 교양, 김일성 우상화 교양(혁명전통교양, 유일사상교양) 등을 받으며 공산당에 충성을 다 해야 한다. 사노청의 사회화 기능에 있어서 활동목표는 ①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 ② 청년들을 당의 사상체제로 무장시키는 역할 ③ 공산주의적 도덕교양, ④ 천리마 작업반운동의 열성적 전개 등으로 요약되며 ‘공산주의화’,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정치사상교양의 구현에 역점을 두고,

2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273.

30) 박문갑, “북한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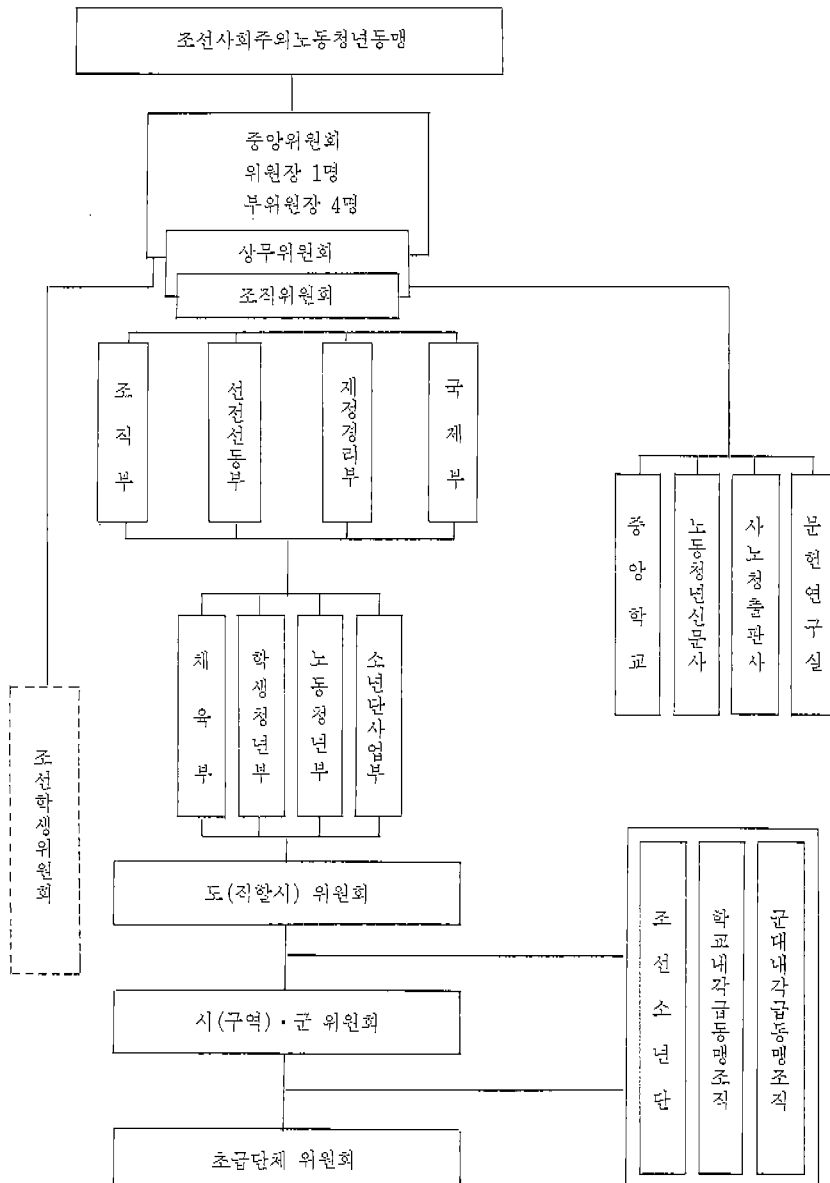
조직을 통한 사상적 단결에 주력하고 있다.³¹⁾

사노청은 당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행정 및 생산단위로 조직, 사노청

중앙위원회, 시·군위원회와 각 직장, 공장,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기구



자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269.

31) 도홍렬, “북한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과정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8), p. 161.

기업소, 군대, 학교 등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급단체는 동맹원 3명이상이 있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국가기관, 교육문화기관, 인민군대와 기타 보조단위들에 조직된다.

조직기구를 보면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중앙단위의 중앙위원회를 지도기관으로 하여 상무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산하에 조정부, 선전선동부, 재정경리부, 국제부가 있으며 체육부, 학생청년부, 노동청년부, 소년단사업부 등의 청소년 지도부서를 설치, 지방조직을 관할하고 있다. 지방조직은 도(직할시) 위원회, 시(구역), 군 위원회 및 초급단체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급지방위원회는 조선소년단, 학교내 각급동맹조직 및 군대내 각급동맹조직을 통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사노청은 상무위원회 산하에 중앙학교, 노동청년신문사, 사노청출판사 등을 두어 직영하고 있다(그림참조).

사노청은 그 활동의 중점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유지강화에 두고 있으며 증산투쟁운동, 청년작업반운동, 3대혁명 불은기 쟁취운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총동원 하고 있다. 1974년 속도전 돌격대 5만명을 조직하여 철도공사에 동원한 것과 1983년 [8·25 새철길 건설]공사에 동원한 것 등은 그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사노청은 젊은 노동자를 혁명화하라는 당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 협동농장 등에 청년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청년학교는 3개월간의 단기코스로서 운영되며 교과의 대부분은 김일성과 다른 혁명가의 영웅적 활동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노청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① 군대, 공장, 기업소 및 농어촌에서 당의 지주역할을 하고, ② 당원을 보충해주는 저장소 역할과 ③ 공산통일을 위한 인적자원 및 예비대의 역할을 하며 ④ 노동력 동원의 중추적 역할 ⑤ 김일성 독재체제의 견고화를 통한 족벌정치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과업은 청년들을 주체사상체제로 무장시키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며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당정책, 김일성의 노작을 연구, 체득하며 남한의 노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 등과 각계각층 청년과의 통일노선을 강화하여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 청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계도하여 당의 노선에 묶어 세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³²⁾

이렇게 볼 때 사노청은 결국 북한의 청소년들을 조직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도덕교양,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사소한 일탈적 행동일지라도 조직적으로 상호비판, 감시하며 체제지향적인 후계자로 양성시키는 정치사회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³³⁾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산체제에 있어서의 청소년단체는 조직구성원의 수나 조직체

32) 북한연구소, 앞의 책, p. 268.

33) 김갑철,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서울:문우사, 1985), p. 262.

계의 단일통제성 및 구조적 성격으로 보아,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조직된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 소련의 공산청년동맹, 북한의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은 모두 18세에서 28세까지의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년선봉대, 옥짜브라따, 피오네르 및 조선소년단은 14세이하 청소년을 가입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령범주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학교, 직장, 기관 등의 청소년 및 학생청소년들을 조직화하여 의도적 정치사회화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공산권 청소년단체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정치사회화의 기능상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보다는 지배집단의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보다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공산주의적 이상은 사회 및 인간에 대한 특수한 관점과 견해를 갖는 것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상적 희망을 개인의 사회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본성은 개조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개인이 협동적이고 공리적인 습성에서 전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산세계에서의 정치사회화의 목적은 공산체제의 목표와 가치를 개개인에게 용인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 모두를 공산주의적 이데올

로기와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공산국가들의 제 1차적 목표와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청소년단체 또한 정치체제의 옹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주로하고 있다.

정치사회화의 기능이 정치문화를 유지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창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특히 그 전수·유지기능으로서의 정치사회화는 약간의 제도성을 띠고 조성된 분위기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의 공청단과 소련의 콤소몰 및 북한의 소년단과 사노청 등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 프로그램화되고 조정된 정치사회화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정치사회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특히 공산국가의 경우 공적 신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개인이 살아가는데 폭넓게 형성되는 개인적 가치들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의와 근대화, 산업화를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태도, 정향들을 발달시킬 절대적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이다.³⁴⁾ 따라서 그들은 이를 위해 교조적 정치교육과 도덕적 교육 및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³⁵⁾ 공공조직, 매스미디어 등 모든 정치사회화 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청소년단체의 또다른 특징은 서구

34) Gary Bertsch, Robert and David Wood,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ower and Policy in Three Worl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p. 239.

35) 심영희, "소련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4권 1호 (1990, 봄), pp. 202-203.

와 달리 공산당과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여 철저하게 지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 청소년단체는 당을 도와 청소년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공적 사업관리 에 그들을 끌어들이으로써 공산당을 위한 인적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젊은 공산주의자, 당 관료, 노동조합 및 경제조직과 연계하여 공산당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상의 이러한 특징은 중국, 소련, 북한 등 국가별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공청단은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회제도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며 이상적인 사회제도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확립하여 자신의 일생을 공산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도록 교육시키는 명확히 정치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활동목표를 둔 청년들의 군중조직이며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예비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에서의 콰소몰은 그 목표와 책무에 있어 일련의 공산주의자 조직이며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콰소몰이 당을 도와 젊은 남녀를 공산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조화롭게 개발된 인간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공산당의 정책과 마르크스-레닌이즘의 선전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내에 정치교육체제를 갖추고 비회원들을 규합시켜 공기업이나 정치역할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사노청은 소련의 콰소몰이나 중국의 공청단과 같이 당의 지도를 받는 당의 후

비대로서 노동당의 영도밑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적 대중혁명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에게 특정 내용을 교육시켜 체제 순응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집단주의 생활로 묶어 조직생활이나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정치사상 교양이라는 정치사회화를 시도하고 있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상 조직 속에서 조직원으로 살고 조직을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당과 위대한 지도자에 끝없이 충성하기 위해서 대중을 동원하며 당의 정책과 지도자가 바라는 바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조직으로서의 청소년단체도 당과 지도자와의 충성스런 일체감 속에만이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³⁶⁾

사회주의권 국가에 있어서의 청소년단체가 개인의 정치사회적 정향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가치관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 체제유지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은 지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70년의 역사에서 청소년단체는 자국의 청소년들을 단결, 교육시키는 하부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지배집단으로서의 공산당에게도 큰 힘이 되어 왔음이

36) 정종국, "대중조직", 김준엽 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p. 109.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제기한 바와같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소련은 이미 변혁의 시기를 맞이했으며 중국과 북한도 개방과 개혁의 요구에 간단없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의 이러한 조류는 분명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에 있어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기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전망된다. 더우기 오늘날의 사회주의권은 개방된 서구와의 물질·인적교류의 확대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란되고 있음에 비추어 청소년단체의 의도적 정치사회화기능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련의 경우 점차 청소년들이 현존체제로부터 소외를 느끼고 반체제적, 반공적 성향이 늘어나고 있으며³⁷⁾ 청년들은 권력과 품위를 지닌 직업선택을 갈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육체노동자의 신분에 있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조사결과를 중국청소년들의 가장 좋아하는 생활형태가 속도있고 활발한 생활, 예술적·낭만적 생활, 조용한 생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각각 54.6%, 21.3%, 15.2%), 대학생이나 직장 청년 모두에 있어 공산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⁸⁾

소련에서의 민주변혁이 중국과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사회화 기구로서 청소년단체의 활동내용과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 가운데 물질적 소유욕이 강하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사회주의 사회의 메카니즘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메카니즘이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중국과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들의 정치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청소년단체도 변화를 맞이할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같이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청소년단체는 현존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정치조직으로서의 청소년집단을 통한 강력한 정치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기능은 여전히 큰 비중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자국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정치사회화의 방향을 어떻게 융화시켜 나가느냐는 것이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청소년단체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태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저지력이 바로 이들 단체의 책무이며 이러한 변화추세로 간다면 그들의 정치사회화 기능도 점차

37) 안택원, 신소년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7), pp. 172-174.

38) 1985년 4월에 상해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생활태도로 54.6%가 과학적이고 활발한 생활, 예술적 낭만적 생활 21.3%, 조용한 생활 15.2%였는데 반해 혁명가나 군인처럼 공격적인 생활은 겨우 16.7%이었다. (Beijing Review, Vol. 28, No. 15, p. 28). 이문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정치사회화 환등”,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1권 3호 (1987, 가을), p. 160 제1인용

저하될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서 발모는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미 물 속에서 불을 지피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서구자본주의의 원칙과 전체 인민의 평등과 상호협동이란 사회주의 원칙

은 적어도 경제학적 기반에서는 조화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을 위한 서구자본주의 발전모델에 대한 접근과 변동, 정치이념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주의적 가치관, 이 두가지의 모순적인 결합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이며 소련이 직면했던 딜레마이며 중국과 북한이 안고 있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